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워크숍

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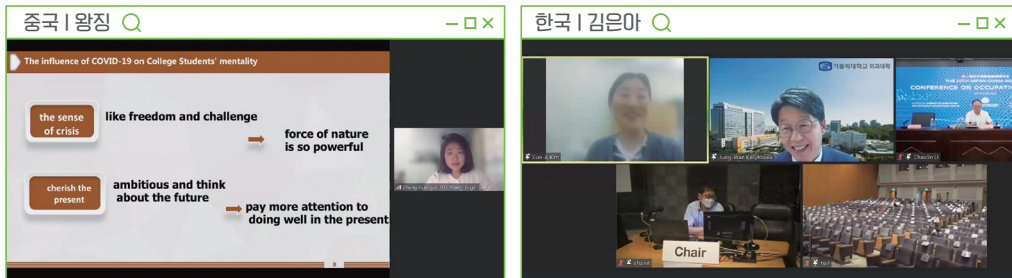


구정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제30차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워크숍이 “직업보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의 예방”이라는 주제로 한국 2편, 일본 2편, 중국 1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왕징(Wang Jing) 교수는 “대학생 취업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상당 기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학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점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신규 직업 건수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쟁과 취업 강도가 높아졌으며 정신 건강과 관련된 면에서 큰 압박을 경험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특정한 직업 구인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지침을 지원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은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직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억 1,500만 명을 약간 넘었고 WHO에 보고된 사망자는 2022년 5월 10일 기준 600만 명 이상이다. 국내에서는 1,700만 건, 23,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풍토적인 단계를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위생환경 관리가 직장 내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이었다. 고용, 노동시간 및 고용불안,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직업 전환, 대면 근무, 필수 노동자 등이 대유행기간 동안 중요한 이슈였다.

의료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배달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 위험군으로 대두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직업안전보건의 역할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가지 주요 연구 주제를 제안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효성 분석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정책
- 2) 고용인정범위 확대
- 3) 성별에 민감한 관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방법
- 4) 배달 노동자 정책
- 5) 산업용 로봇의 수명주기별 안전성 향상
- 6) 물류센터 수명 주기별 안전성 확보
- 7) 산업재해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모델
- 8) 새로운 위험요인과 고용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직업건강시스템
- 9) 직업 건강 집단지성 활성화
- 10) 취약 근로자 및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네트워킹, 돌봄 노동자 고용현황 및 건강보호 대책 수립, 건강한 재택근무를 위한 지침 개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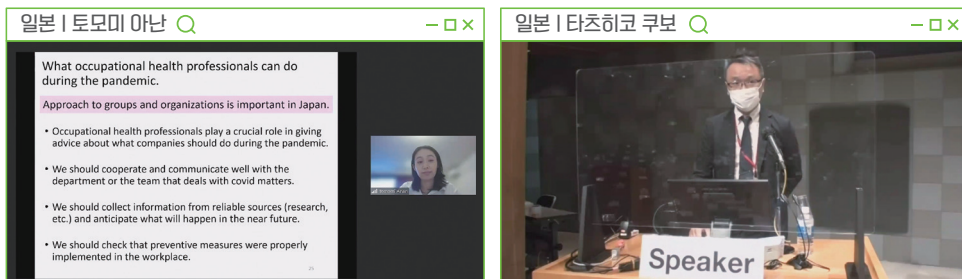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사고와 함께 포스트 위기 시대로 출발하게 할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신규 직업 건수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쟁과 취업 강도가 높아졌으며 정신 건강과 관련된 면에서 큰 압박을 경험하였다.

널리 보기

: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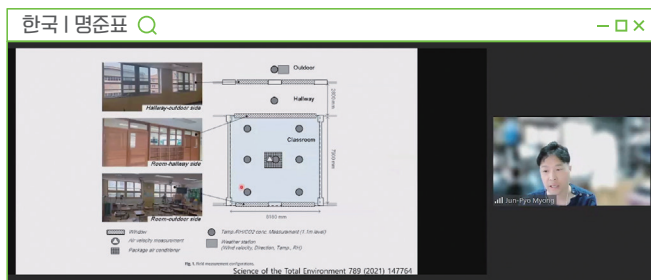
세 번째로 일본의 토모미 아난(Tomomi Anan)은 “일본 글로벌 대유행 기간 동안 직업보건 전문가의 이니셔티브”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많은 노동자들은 작업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직업보건 전문가는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점에서 현재 과학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은 잘못된 정보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뒤섞여 있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CORoNa Work Project”는 일본 UOEH의 교수진,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조직하여 코로나19 전염병이 노동자의 사회 및 환경 조건(고용, 경제, 생활양식, 의료 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진은 비 제약적 개입(NPI: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감염 사례의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조치)의 구현과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CORoNa Work Project”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국제적으로도 소개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일본의 타츠히코 쿠보(Tatsuhiko Kubo) 교수가 “응급 상황 시 건강 데이터 수집”에 대해 발표하였다. 비상시 정보 관리는 더 나은 조정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건강 위기관리에서는 어디에 몇 명, 어떤 종류의 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상시 건강 데이터 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1)로지스틱: 도로 상황 및 안전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나 데이터 수집가가 영향을 받는 시야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한다. 2)윤리: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거나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 3)표준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분석, 표준화 및 조직간 합의를 위한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4)현재 대응의 관련성: 수집된 데이터는 지속적인 구호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응급의료팀(EMT)에서 EMT 피질 세포(EMTCC)로 보고 프로세스가 밝혀졌는데, 이는 EMT가 추가적인 보초 보고 장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조정과 질병 조기 경고 시스템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판 SPEED인 필리핀에서 채용된 Surveillance in Post Extreme Emergencies and Disaster(SPEED)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J-SPEED라고 불리는 것이 2015년에 개발되어 출판되었다. J-SPEED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처음 작동되었으며, 응답 48일 동안 EMT는 매일 8,089명 환자의 의료 수요를 성공적으로 보고하였다. 구마모토 지진의 사례는 J-SPEED 방법론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에 명시된 모든 장애물은 재해 시 데이터 수집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론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보건기구는 최소 데이터 세트(MDS)라고 불리는 SPEED와 같은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했다. 현재 MDS는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에 사용되며, 히로시마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변형된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기전과 전염 경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콜센터 등 사업장
내 감염 역학평가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었는데, 사례를
통해 폐쇄적인
환경(사업장)에서의
감염 임계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명준표 교수가 “코로나19 감염 경로 및 직장 내 예방 전략”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대유행이었다.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가 유행한 이후, 많은 연구가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 경로와 기전을 보고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레퍼린스를 통해 널리 받아들여졌다. 코로나19의 감염 기전과 전염 경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콜센터 등 사업장 내 감염 역학평가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었는데, 사례를 통해 폐쇄적인 환경(사업장)에서의 감염 임계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내의 공공 지침을 고려하여 직장 내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제공하였다. 직장에서의 적절한 예방 지침과 실천은 새로운 유행병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